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

성경: 마 5:8, 13:3-9, 18-23, 잠 4:23, 렘 32:39, 엡 3:16-17

- I.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마음은 사람의 속부분들의 집합체이자 사람의 총대 표이자 사람의 행동하는 대행자이다.
- A. 우리의 마음은 우리 혼의 모든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마 9:4, 히 4:12, 행 11:23, 요 14:1, 16:22)와 우리 영의 한 부분인 양심(히 10:22, 요일 3:20)이 더해져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 B. 우리의 마음이 활동적일 때에만 영을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사람의 마음이 냉담하면, 영은 안에 갇혀서 그 역량을 나타낼 수 없다 — 마 5:3, 8, 시 78:8.
 - C. 혼은 사람 자신이지만, 마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마음은 우리 전 존재의 행동하는 대행자, 행동하는 위원이다.
 - D. 우리의 신체의 활동과 움직임은 신체의 심장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매일의 생활, 곧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정신적인 심장 곧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지에 달려 있다.
 - E.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 곧 생명의 ‘스위치’이다. 마음이 올바르게 않으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은 방해를 받고, 생명의 법은 장애 없이 자유롭게 작용하지 못하여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도달하지 못한다. 비록 생명이 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큰 능력은 우리의 작은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 — 잠 4:23, 마 12:33-37, 비교 겔 36:26-27.
- II. 우리의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 건축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라실 때 일어난다(요일 3:9, 뱀전 1:23, 골 2:19, 엡 2:21, 4:15-16, 마 13:18-23).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으로써 주님께 협력해야 한다.
- A.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움을 원하신다.
 - 1.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우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시고 고기 같은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 겔 36:26.
 - 2. 부드러움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거나 반역적이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고 온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 출 32:9.
 - 3. 부드러운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아무 장애 없이 자라실 수 있는 좋은 땅이다. 부드러운 마음은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지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이 세상의 염려도 없고 재물에 속지 않는 마음이다 — 마 13:3-9, 18-23.
 - 4.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사용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다면, 그분은 환경을 통해 그분의 손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신다 — 고후 5:14, 4:16-18, 히 12:6-7, 비교 렘 48:11.
 - B.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신다.
 - 1.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다.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선호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 — 마 5:8, 시 73:25, 비교 렘 32:39.
 - 2.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일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만을 두려워한다 — 시 86:11, 사 11:1-2.
 - 3.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히 누리고 얻는 것이어야 한다 — 빌 3:7-14.
 - 4. 우리는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 — 딤후 2:22, 딤펢전 1:5, 시 73:1.

- C.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1.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주님과 개인적이고 애정 어리고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갖는 마음이다 — 시 42:1-2, 아 1:1-4.
 2.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듭 주님께 돌이키고 계속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 고후 3:16.
 3. 모든 영적인 체험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체험도 가질 수 없다 — 엡 6:24, 계 2:4-5.
 4.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장비시킨다.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하여 넘쳐흐를 것이다 — 요 21:15-17, 마 26:6-13, 28:18-20.
- D.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1. 평안한 마음은 거리낌이나 유죄판결이나 책망이 없는 양심을 가진 마음이다 — 행 24:16, 요일 3:19-21, 히 10:22.
 2.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용서와 깨끗하게 하심을 받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누릴 수 있다 — 요일 1:7, 9, 딤후 1:5, 3:9.
 3.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실행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데, 이 평안은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수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시는 평안이신 하나님이다 — 빌 4:6-7.
 4. 한 새사람을 입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 골 3:13-15.

III.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

- A.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 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 고후 3:14, 4:4.
1.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오직 한 가지뿐임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는가이다 — 갈 1:16, 2:20, 4:19, 빌 1:19-21, 고후 3:18.
 2.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 롬 8:6.
- B.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는 위선이다 — 마 6:2, 5, 7:5, 23:13-29.
1.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2. 우리의 타고난 선은 거짓된 영성이며, 사실상 생명에 커다란 방해물이다. 생명의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는 것과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과 관련된다.
 3.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일들을 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이다.
- C.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세 번째 문제는 반역이다 — 고후 10:4-5.
1.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뜻과 요구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신다.
 2. 그러나 우리가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반역이다.
 3.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외적이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고 계신다 — 롬 8:6, 요일 2:27, 비교 엡 3:1, 4:1, 6:20, 고후 2:12-14.
- D.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네 번째 문제는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이다.

1.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매우 경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역량과 재능이 강하고 크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입지나 길을 얻지 못하신다.
 2. 우리에게 역량과 은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죄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을 떨치하기보다 매우 귀하게 여긴다.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이 파쇄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이다.
- E.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한다 — 마 16:24-25.

IV.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직면하는 주관적인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

- A. 첫 번째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 생각의 문제이다.
1.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성공을 거둘지라도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살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다 — 비교 빌 2:5, 고전 2:16, 엡 4:23, 롬 12:2.
 2. 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협력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생명은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날 수 없다.
 3.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속사람과 일치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 조금도 없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안이 있고, 적대감이 없게 된다(롬 8:7). 그 결과 우리는 속에서 평안함을 느낀다 — 롬 8:6.
- B. 두 번째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 의지의 문제이다.
1. 비록 우리의 생각이 자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복종하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2.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인지하고 깊이 감지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는 복종하고 굴복하기를 거절하며,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
 3.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한 의지와 약한 의지는 둘 다 하나님의 생명에 장애물이다. 처리받은 의지는 주님께 정복되고 주님에 의해 부활하여 강하면서도 유연하다.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 빌 2:13.
- C. 세 번째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 감정의 문제이다.
1.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을 가져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 — 살후 3:5, 빌 1:8.
 2.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해야 한다. 우리의 감정과 그분의 감정은 반드시 하나의 감정이 되어야 한다 — 엡 5:25, 고후 12:15, 고전 16:24, 계 2:6, 빌 1:8.
- D. 우리는 속사람에 이르도록 매일 강하게 됨으로써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요 부분인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엡 3:16-17.

- V.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며 성숙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일은 주님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분의 생명에서 나온 일만이 그분의 영원한 표준에 이를 수 있고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 요 7:37-39상, 고후 4:10-12, 요일 5:16상, 고후 3:3, 6.